



보도시점 2023. 10. 5.(목) 09:00
< 10. 5.(목) 석간 >

배포 2023. 10. 4.(수)

민관합동 9대 단기 수출 확대 프로젝트로 수출플러스 전환 이끈다

-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첫 출범...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위상 강화
- 금년 중 수출 263억불, 수주 314억불 목표로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추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5(목)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①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②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③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④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장관(주재), 기재부·외교부·국토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무역협화·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지식재산보호원·자동차모빌리티협회·KTNET 기관장, 반도체협회·바이오산업협회 부회장, SK하이닉스·삼성중공업·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사장급 등

먼저,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아세안), 이차전지(미(美)),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5대 유망 수출 분야는 금년도 수출목표(263억불) 달성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시키고, 금년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금년도 수주 목표 314억불)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주 후속 기자재 수출 등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수출 활력의 모멘텀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플랜트 분야의 경우 정상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시작된 신(新)중동부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이를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시켜 금년도 300억불 이상의 수주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금년 중 민관합동 '우크라이나 재건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 등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K-뷰티, K-푸드, 콘텐츠 등 소비재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지재권 분쟁의 선제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해외IP센터를 통한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을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증거수집, 법률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 피해구제까지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지난 9월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수출 감소율 최저치 기록,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대중국 수출 및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수출 개선 흐름세를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달러라도 더 수출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고] 1.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2.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주요내용
 3.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주요내용
 4.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 [별첨] 1.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2.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최혁기(044-203-4021)
			사무관	서두원(044-203-4024)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책임자	과 장	조웅환(044-203-4310)
		담당자	서기관	이은희(044-203-4312)
			사무관	김기열(044-203-431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성우(044-203-5680)
			사무관	마선영(044-203-568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한덕원(042-481-5182)
		담당자	사무관	강연무(042-481-3536)

참고1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 10. 5(목), 09:00 ~ 10:2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님(주제) 등 총 25여명
 - (민간기업)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겸 조선협회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
 - (민간협회) 구자열 무역협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협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 (지원기관) 유정열 코트라 사장, 이인호 무보 사장, 윤희성 수은행장, 최원목 신보 이사장, 차영환 KTNET 사장, 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장 등
 - (관계부처) 외교·국토부, 특허청 등

2 주요 안건

-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산업부)
- '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전략 (산업부)
-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방안 (특허청)
-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코트라)

3 세부 계획

행사	시간		주요내용		비고
수출 대책 회의	08:40~09:00	20'	무역협회장 상견례		장관님·무협회장
	09:00~09:05	05'	모두발언		장관님
	09:05~09:40 (35')	15'	범부처 수출확대전략		
		(05')	안건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제조산업정책관
		(05')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전략	통상협력국장
		(05')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방안	특허청 국장
		20'	토론		소참석자
	09:40~10:00 (20')	20'	업계 수출동향 공유		
		(20')	발표	반도체→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	업계 대표·협회
	10:00~10:18 (18')	10'	유관기관 수출지원방안		
		(05')	안건	최근 수출변동 결정요인 분석 및 대응방향	무협 부회장
		(05')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코트라 사장
		08'	토론		소참석자
	10:18~10:20	02'	마무리 발언		장관님

참고2

「9大 수출확대 프로젝트」 주요내용

- **(추진배경)** 금년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단기적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출 동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대비 필요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단기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밀착 지원할 필요
- **(추진방향)** ①금년중 수출대상국과 전략적 돌파구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②수주·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조치 추진, ③민관의 효과적 역할 분담下에 중요 계기를 기점으로 역량 결집
- **(9대 전략 프로젝트)** ①모빌리티, ②에너지, ③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9대 프로젝트 추진 → 올해 수주 314억불, 수출 263억불(대상지역·품목 기준)
 -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및 대규모 인프라를 추진중인 중동·아시아 지역에 전기차·충전기, 항공기·로봇, 건설기계 수주·수출 돌파
 -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은 북미·유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동지역 대상으로 풍력발전 기자재와 수소연료전지, 플랜트 수주
 - **(소재·부품)** 첨단 중간재 수요가 커지고 있는 미주·유럽 지역에 이차전지, 탄소섬유·중간재, OLED 등 첨단소재·부품 수출 확대



- **(향후 조치)** 민·관 합동 「9대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TF」가동, 프로젝트전담관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 이행 점검 및 밀착 관리
- 10월중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기업 애로 해소방안(가칭)' 발표,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지속 발굴 추진

< 9대 수출 전략 프로젝트 주요 이행계획 >

구분	프로젝트명	주요 수출 지원 이행계획
모빌리티 → 중동+아시아 등	① (美·EU·아세안) 전기차·전기차 충전기	• 인니 전기차 ODA 협력사업 추진('23~'26년 180억원 * 전기차 시범보급, 충전기 보급, 공동R&D 등) • 한-인니 전기차 협력센터 개소('23년말) •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준공(4분기, 현대차) • 전기차 충전기 산업 얼라이언스 구성('23.4분기)
	② (美·중동·아세안) 다목적 헬기 및 첨단로봇	• 다목적 헬기 시장 확대 방안 마련(방산발전협의회 4분기) • ADEX 전시회(10월) 등 계기 수주미팅 지원 • 한-미 로봇산업 쇼케이스 개최('23.4분기) • 2023 로보월드(10월) 계기 유력바이어 상담회
	③ (중동) 건설기계	• 건설사-건설기계 제조사 협력방안 마련(4분기) •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10월) 협력사업 제안 • 수출형 친환경·스마트 건설기계 R&D 신규 추진('24~)
에너지 → 북미유럽+중동	④ (북미·EU) 풍력발전 기자재	• 해외 풍력 선도기업 고위급 면담 및 주요국 네트워킹 행사 추진('23.下) • 국내외 개발사-제조기업간 TF 구성('23.下) • 선도기업 수요맞춤형 기술개발('23~'26년 90억원)
	⑤ (북미·중동)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플랜트	• 연료전지 수출지원 T/F 출범 및 연료전지 수요 발굴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실시('23.下) • '해외 청정수소(플랜트) 진출 지원단' 가동('23.下)
	⑥ (중동·중앙아) Oil&Gas 플랜트	•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10월, 잠정) •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24년, 잠정) •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24년, 잠정)
소재·부품 → 미주+유럽	⑦ (미국) 이차전자·소재	•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단'(9월 발족) 및 투자 애로 해소 • 美 IRA 관련 對美 협의 지속 • 수출품목 다변화 기술개발 지원('23~'26년 442억원)
	⑧ (美·中) 탄소섬유·중간재	•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운영, 해외인증기관과 MOU 체결(4분기) • 유망 수요처 발굴 및 실증 지원
	⑨ (美·EU) OLED 디스플레이	• 국제학회·해외기관내 투명 OLED 설치·홍보 * 국제전기전자재료학회(10월) 등 • 차량용 디스플레이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23~'27)

참고3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주요내용

1. 플랜트 수주 현황 : [목표] 300억 불, [실적] 189.8억 불('23.9 기준)

- (평가) 9월까지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은 189.8억 불로 전년 동 기간(172.2억 불, '22.9) 대비 17.6억 불 상회(10.2%↑)
- (전망) 현재 총 494억 불 규모의 플랜트 수주를 추진 중*이며 이 중 4분기 중 수주 목표는 절반 이상(54.4%)인 268.5억 불(플랜트협회)

* (주요국 사례) 사우디 8건(178억 불), 카타르 2건(23억 불), 튀르키예 3건(58억 불) 등

2.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 중동·중앙아 등 플랜트 수주 일정과 정부 차원의 ▲양자 협력 채널, ▲고위급 면담 등을 연계하여 지역(국가) 맞춤형 수주지원 추진

※ 주요국 수주 추진 규모 및 양자 협력 일정

	'23.下 프로젝트	협력 채널 주요 일정
사우디	178억 불, 8건	▶「韓-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10월 잠정, 서울)
중동	244.5억 불, 12건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11월 잠정, 서울)
베트남	44억 불, 2건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12월 잠정, 서울)
카자흐	57.5억 불, 3건	▶「한-카자흐스탄 경제 공동위」('24년 잠정, 카자흐)
튀르키예	58억 불, 3건	▶「한-튀르키예메니스탄 경제 공동위」('24년 잠정, 튀르키예)

3.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

- (단계별 협력)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재건 프로젝트 “United-24”에 따라 1단계임시 복구→2단계전후 복구→3단계인프라 대개조 등 단계별 협력 추진
- (민간주도) 한무역협회-우상공회의소 간 민간 채널 구축('23.8)을 통해 에너지, 기자재, 건설산업 등 재건 관련 민간 주도 협력* 추진

* 민간 협력 측면 지원을 위한 정부 채널 구축 추진(한산업부-우에너지부, 경제부 등)
↳ 산업부 장관을 단장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절단」파견 예정(금년중)

- (국제공조) 폴란드, UAE 등 제3국과 협업*하여 재건 공동 추진 및 국제기구(MDBs, EU, UN) 재원 활용**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진출 지원

* (폴) 재건 플랫폼 역할 수행, (UAE) 한-UAE 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제안('23.9)

** 재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민간 투자 방식 외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 ▲러 압류자금 활용,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조성 등이 거론

참고4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I. 현황 및 필요성

□ 범정부적으로 금년도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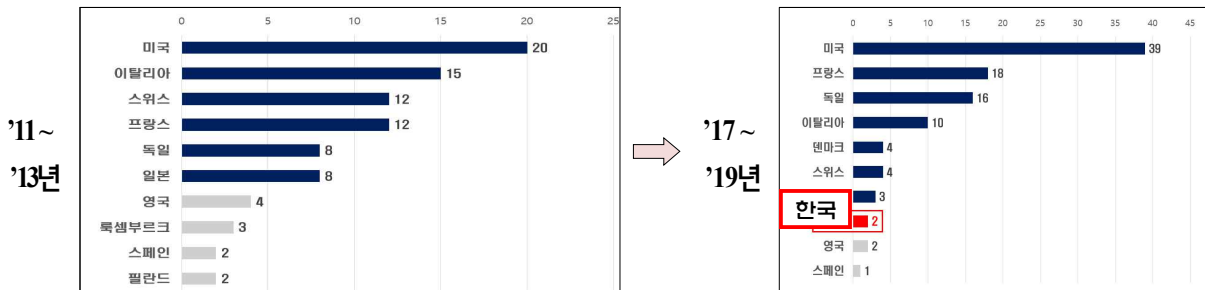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세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부처가 전략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 필요
- 특허청도 우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지식재산 분쟁 범정부 종합대책(2건)을 발표하고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 중

* ①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3. 2, 비상경제장관회의), ② 해외 특허관리기업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3. 2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해외 지식재산 보호·분쟁대응도 중요

- 한류확산·기술력 향상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지식재산 침해 피해 증가 → 수출확대의 복병

< 전세계 국제무역 중 위조상품 상위 10대 피해국(OECD) >



* 해외 지식재산 침해 위조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19) 추산('22, 지식재산연구원): (수출 등 감소) 약 22조원 (일자리 손실) 31,753개(전체의 0.7%), (세입 감소) 4,169억원

-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 중이나, 해외 현지 초동 대응을 위한 현지 해외IP센터(舊 IP-DESK) 설치국가는 11개국에 불과

< 핸드폰 액세서리 제조기업 S社の 수출애로 청취('23.5.26) >

✓ 위조상품 범람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철수했으며, 약 30개국 이상에서 위조 상품 유통으로 전체 매출액(4천억원) 중 최소 10%인 4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 추정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대응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기관 간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협업·연계 확대 필요

참고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애로사항 및 이슈

구 분	애로사항 및 이슈	건의사항
C社, I社	신상품 발매 시, 빠르게 가품이 생산되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심지어 가품이 더 많이 판매되어, 정품 수출 경쟁력이 하락 (‘22.11, 수출현장 규제애로 의견수렴)	개별기업이 해외에서 가품(위조상품)에 대응 중이나, <u>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대응 필요</u>
E社	영어 교육교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등) 침해가 중국에서 빈번 (‘22.11, 수출현장 규제애로 의견수렴)	<u>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보호 필요</u>
화장품업계	K-뷰티의 전세계적 확산과 함께 K-뷰티 모방품 지속 발생. 특히, 온라인유통 활성화로 모방품이 확산 추세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 (‘23.5,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u>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u> 지원국 및 온라인플랫폼 확대 필요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체	위조상품 범람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 30개국 이상에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전체 매출액(4천억원) 중 최소 10%인 400억원 이상 매출 손실 (‘23.5,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현장 방문)	우리기업에 대한 <u>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피해 구제지원 강화 필요</u>
주류업계	동남아에서 한국 소주 유사상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 및 타국가 수출 → 국내 주류업체 수출 타격 (‘23.9, 비경장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 한국 소주를 베낀 해외 로컬 소주가 태국 시장의 60%, 말레이시아의 10% 점유	<u>한국 소주를 모방한 해외 유사상품 유통 방지 지원</u>
농식품	베트남, 태국 등에서 한국산 과일(배, 사과 등)에 대한 <u>짜통 과일 유통</u> (‘21.10, 한국농어민신문)	현지 당국과 협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단속 필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	국내 중소·중견기업 특히 전문인력 및 소송경험 부족으로 NPE 등 해외 특허분쟁에 신속한 대응 곤란 (‘23.3, 조선비즈)	중소·중견기업 해외특허 분쟁 시 정부가 적극 지원 필요

II. 주요 추진과제

【 기본 방향 】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예방부터 대응까지 밀착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부처·민관 공동대응 강화
 특허청-KOTRA 협업을 통한 해외 현지 지원 강화

1 수출기업 지식재산 분쟁예방부터 분쟁대응까지 밀착지원

□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 시 해외 IP분쟁 사전예방 연계지원 강화

-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시, 해외 특허분쟁 및 기술·영업비밀 유출 예방 병행 지원('24)

산업부·중기부(KOTRA·무역협회·중진공)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출 지원	글로벌 바이어 매칭, 투자유치, 마케팅, 기술수출(제휴),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등	특허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 지원	- 특허분쟁 위험진단·대응전략 지원 우대 (가점) - 기술보호 최적화(IP-MIX) 전략 지원 우대 (가점)

-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기업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사례 및 예방전략 교육 지원('24)

산업부·중기부(KOTRA·무역협회·중진공)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온라인플랫폼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전사박람회 개최	특허 및 K-브랜드 등 지식재산 분쟁사례 및 예방전략 교육 제공

【 해외전시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관련 지식재산 분쟁 사례 】

- ▶(특허침해소송) 프랑스 국제전시회 참가 → 경쟁기업이 특허침해를 주장, 제품 압수, 피소('15)
- ▶(상표침해소송) e-bay에서 '홀라후프'를 판매하던 영세기업인 7명이 상표침해로 집단 피소('19)
- ▶(위조상품유통) 중국에서 제3자가 동일명칭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마켓 위조상품 판매('21)

□ 해외 지식재산분쟁 발생 수출기업에 대해 원스톱 지원

- (피해 모니터링)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재산 피해 업종·품목·기업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피해 실태조사 및 증거수집 추진("24)
- * 해외 현지 지식재산 교육·세미나, 수출기업 간담회, 현지 교민 네트워크 활용 등
- (피해구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한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IP센터를 통해 초동대응 지원 후, 후속 심층지원 제공("24)

< 해외 지식재산(IP)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



2 해외 지식재산 보호 부처 · 민관 공동대응 강화

□ 현지 진출기업 지식재산 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 (애로파악)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IP애로 수집채널을 지재권 중점공관·해외IP센터에서 일반공관·해외무역관까지 확대("23.10)
- * 지재권중점공관(14개국), 해외IP센터(8개국), 일반공관(36개국), 해외무역관(84개국)
- (애로해결) 특허청이 1차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범정부 협력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산업부 등과 공동대응 추진("23.10)

【 해외 지식재산 애로 범정부 공동대응 사례 】

- ▶ (KF94 짝퉁마스크 대응, '22) 해외 KF94 짝퉁 마스크 유통 → 오프라인 행정단속 및 온라인 판매차단, 세계지식재산기구에 'KF' 보호요청, KF 마스크 해외 소비자 홍보 (외교부·식약처·특허청)
- ▶ (전통식품 명칭 무단선점 대응, '22) 'kimchi' 등 전통식품 명칭이 해외에서 무단 상표 출원·등록 → 국제상품분류 등재, 국제 식품규격 반영 확대, 무단선점 상표 이의제기·무효 신청 (외교부·농식품부·특허청)

□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민관협력 강화

- (특허·영업비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분야의 협단체와 연계하여 특허분쟁 예방·대응* 및 기술·영업비밀 보호** 지원 강화('23.10)

* 분쟁고위험 특허 분석·대응, 분쟁발생 시 협단체·기업 공동대응협의체 구성 및 대응 지원

** 기술보호 최적화(IP-MIX) 전략 및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지원

-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 빈발 업종*별 협단체 지원 강화**,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운영('23.11)

* 식품, 화장품, 패션, 프랜차이즈, 음악콘텐츠 등 5대 업종

** 최대 5년 지원,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 증거수집, 행정단속·소송 등 패키지 지원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안) >



3 특허청-KOTRA 협업을 통한 해외 현지 지원 강화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KOTRA 해외IP센터 협력체계 강화

- (현황) KOTRA는 국내에서 해외 지식재산 지원조직을 운영하면서 해외 무역관의 해외IP센터(舊 IP-DESK)*를 통해 현지 지식재산 보호 지원 중**

* 11개국 17개소: 중국(6), 베트남(1), 태국(1), 미국(2), 독일(1), 일본(1), 인도(1), 인나(1), 필리핀(1), 러시아(1), 멕시코(1)

** (특허청 보조사업 예산 활용) 상담·법률자문, 정보수집·제공 및 법률서비스 제공

- (개선) 지식재산 보호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현지 지식재산 보호를 전담하고, KOTRA는 해외무역관 인프라 활용* 협조('24) → 기관별 강점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 지재권보호 시너지 극대화

* 부처·기관 등이 무역관에서 함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KOTRA '원루프 지원체계' 활용

□ 광역형 해외IP센터를 통한 현지 지식재산 보호 지원국가 확대

- (현황) 11개국 17개소의 '해외IP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IP센터 미설치 국가*는 해외 지식재산 보호 취약

* 예) 수출액/상표출원 순위 : 대만(6위/6위), UAE(7위/20위), 호주(9위/14위), 말레이(12위/7위)

- (개선) 지역별 해외IP센터 운영을 인근 국가까지 지원하는 광역형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국을 11개국 → 40개국으로 대폭 확대*('24)

* 해외IP센터 사업예산/지원국가 : ('23) 33억원/11개국 → ('24) 54억원/40개국
해외IP센터 1개소당 평균 지원국가 수 : ('23) 0.6개국 → ('24) 4개국

< 광역형 해외IP센터 운영체계 및 지원국가(안) >

특 허 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TRA협업)										
광역형 해외센터	북미 (LA)	미국 동부 (뉴욕)	동북아 (베이징)	중국 남부 (광저우)	일본 (도쿄)	유럽·러시아 (프랑크푸르트)	동남아 동부 (호치민)	동남아 서부 (방콕)	서남아·중동 (뉴델리)	중남미 (멕시코시티)
지원국가 (40개국)	미국 서부, 캐나다 등	미국 동부	중국 북부, 몽골, 대만 등	중국 남부 (홍콩, 마카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튀르키예,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2개국		3개국		1개국	10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7개국

Ⅲ. 향후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일정	주관(협조)
1. 수출기업 지식재산 분쟁예방부터 분쟁대응까지 밀착지원		
• 수출지원 시, 해외 IP분쟁 사전예방 연계지원 강화	'24.1	특허청 (산업부·중기부· KOTRA·무역협회)
• 해외 지식재산분쟁 발생 수출기업 원스톱 지원	'24.1	
2. 해외 지식재산 보호 부처·민관 공동대응 강화		
• 현지 진출기업 지식재산 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23.10	외교부·산업부·특허청
•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민관협력 강화	'23.10	특허청(산업부· 민간협회·협동조합)
3. 특허청-KOTRA 협업을 통한 해외 현지 지원 강화		
• 특허청-KOTRA 해외IP센터 협력체계 강화	'24.1	특허청 (산업부·KOTRA)
• 광역형 해외IP센터를 통한 현지 지식재산 보호 지원국가 확대	'24.1	